

보호종 줄고 교란생물 급증...월출산공원 생태계 보호 시급

국립공원공단, 생태계·자원 조사 2508종 서식...교란종 매년 발견

구정봉·천황사지구 10곳 보호대상 안내판 훼손·편의시설 부족 지적도

산악형 국립공원인 월출산(月出山)의 구정봉이 세계급 보호대상인 'I 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생태계 교란생물이 번성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어 보호조치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는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 월출산 국립공원 공원자원 조사' 결과다. 조사는 자연생태계, 경관 및 문화자원 등에 걸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걸쳐 진행됐다. 지질조사 결과 구정봉이 세계급 보호대상 I 등급으로 평가받았고, 천황사 지구에 10곳의 지형·지질 자원(구름다리 인근절벽, 사자봉 인근 절벽, 바람폭포, 통천문, 천황봉, 남근바위, 마애여래좌상, 육형제바위, 고인돌바위, 사자봉)이 국가급 보호대상인 II등급으로 평가됐다. 상위 I·II 등급에 해당하는 지형·지질자원은 전체 54개 중 46.9%에 해당하는 30곳으로 확인됐다.

월출산 국립공원은 상대적으로 타 국립공원에 견줘 벤치와 데크시설 등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현장 안내판이 많이 훼손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중생대화강암류 산지지형으로 이뤄진 탓에 풍화와 침식으로 가파르고 빼어난 지형이어서 등산객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자연 생태계 조사 결과 월출산 국립공원내에는 총 2508종이 살고 있고, 멸종위기야생생물과 생태계교란종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진 곤충 조사에서는 627종 9612개체가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생태계교란생물인 미국선녀벌레와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이 관찰됐다.

갈색날개매미충은 2009년, 2018년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발견됐고 특히 약충과 성충 및 알의 흔적까지 다수 발견돼 대발생이 우려된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꽃매미와 미국선녀벌레는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발견됐다.

보고서에는 곤충 서식지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곤충류(주간)연구를 맡은 농업회사법인 '이랑' 주식회사는 "비교적 탐방객이 적은 월출산국립공원은 자연적인 생태를 보전하고 있지만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훼손된 탐방로가 많고 제조 관리가 되지 않아 접근이 어려워 곤충을 찾

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인근 농민들이 멧돼지 퇴치를 위해 경음기를 야간에 30분 간격으로 터트리거나 잡초 제거를 위해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곤충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출산이 국립공원으로 등록(1988년) 된 이후 처음 실시된 선대식물 조사에서는 '월출흰털이끼'가 처음으로 발견(6월 17일자 광주일보 7면)됐다. 월출산 일대에 생육하는 선대식물에 대한 선행 조사가 없어 이번 조사가 최초의 월출산 선대식물 조사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120종의 선대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선대식물 1051종 가운데 11.7%에 해당한다. 국내 미기록종으로 확인된 월출흰털이끼는 흰털이끼과로 동남아시아 등지에 드물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끼다. 잎의 선단부에 잔돌기가 있다.

산호우산대이끼, 큰비룡수풀이끼, 물겉계발이끼, 세모귀이끼, 큰비룡수풀이끼 등 남방계 식물이 자 드물게 분포하는 이끼종도 발견됐다.

소형포유류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의 서식이 직접관찰과 배설물을 통해 확인됐다. 하늘다람쥐가 발견된 도갑사지구와 금릉경포대지구는 산지낙엽활엽수림으로 수계와 인접하며 참나무류와 뽕나무 등 하늘다



월출산 국립공원 전경.

람쥐가 선호하는 식생이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류조사에서는 55종이 발견됐으며 1998년과 2009년 73종이 발견된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1기(1998년)-3기(2018년)에 발견됐던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와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긴꼬리딱새가 발견되지 않았다.

양서류와 파충류의 경우 각 1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맹꽁이(양서류)와 구렁이(파충류)는 1기 조사에서만 관찰됐고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황소개구리는 1.2, 3기 조사에서는 관찰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배터리 교체로 소중한 폰 더 오래 써봐요”

6일 '아이폰 배터리 자가교체 워크숍'...13일 의류교환 파티도

광주일보사와 환경 단체 유어스텝이 함께 진행하는 '살모를 찾는 시간-다시 쓰고, 고쳐 쓰는 자원순환 실천실' 두 번째 리페어 워크숍이 오는 6일 광주시 동구 한결음 가게(충장로 45-2 2층)에서 열린다.

이번에 진행되는 행사는 '아이폰 배터리 자가 교체 워크숍'으로 수리상점 고크손의 유혜민, 모호연씨가

가 강사로 나선다.

오전 11시-낮12시 30분에는 아이폰 6, 6s, 6+, 7, 7+, 8, 8+ 기종을 수리할 수 있으며 오후 2시-4시에는 아이폰 X, XS, 11, 11pro 기종을 수리한다. 참가 비용은 1회차 만원, 2회차 4만5000원(배터리 구입 및 공구 대여료 등)이며 액정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 시간과 비용이 별도로 추가된다. 신청

bit.ly/리페어워크숍_배터리.

한편 오는 13일(오후 1시30분-4시)에는 '의류교환 파티-바퀴 입장'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파티는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의류 재사용의 가치를 알리는 다시입다연구소의 '21% 파티'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교환할 여름 의류 및 패션 잡화(모자, 가방) 3점을 지참한 후 가져온 아이템 수만큼 교환권을 받아 원하는 옷으로 교환하면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슬로 워크숍도 열리며 현장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 부스에 기부도 가능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남구, '인생 N모작 리스타트 배움터' 진행

8~19일 참가자 모집

광주시 남구가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앞둔 중장년을 위해 재취업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나섰다.

남구는 8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인생 N모작 리스타트 배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책 감성 큐레이터 2급 자격증 취득 과정과 시니어 모델 양성 2기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그림책 감성 큐레이터 2급 자격증 과정은 오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세계 여러 국가의 그림책 역사부터 감성 치료 이론 및 실기까지 배울 수 있다.

시니어 모델 양성 과정은 8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10회차에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맞춤형 자세 교정과 워킹을 배운 후 10월 10일 패션쇼 무대까지 서게 된다. 모집 인원은 각각 12명, 15명이다.

프로그램엔 남구 주민 중 퇴직자나 퇴직예정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남구 문화교육행사 어플로 신청하거나 남구 교육체육과로 전화하면 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카페·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으로 한계

광주환경연 조사...1회용컵 97% 개인컵 사용 할인제도 홍보 절실

1회용품 줄이기에 자발적 참여를 약속한 광주지역 카페·패스트푸드점의 절반 가량은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연합)에 따르면 광주 카페·패스트푸드점 대상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 조사결과 69곳 중 34곳(49%)이 여전히 컵 및 빨대, 스푼 등 1회용품 사용하고 있다. 또 포장 시 1회용 컵 사용 비율이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

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유예하고 지난 1월, 24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69곳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항목은 종이컵의 색깔, 매장 내 제공되는 컵의 재질, 개인 컵을 가져왔을 때 인센티브 제공 홍보방법 및 할인 금액, 조사기간 내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의 종류 및 개수, 조사기간 내 포장하는 고객들의 컵 종류 및 개수, 매장 내 제공하는 빨대 및 컵은 막대 제공방법 및 재질, 매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푼, 포크, 나이프 재질 등이다.

조사결과 광주 69개 매장 중 34개 매장(51%)에서 1회용 플라스틱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

다.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빨대, 찻는 막대, 스푼, 나이프, 포크 재질을 확인결과, 빨대와 찻는 막대는 아직 많은 곳에서 여전히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었다. 빨대의 경우 34곳(49%)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체류시간 30분을 기준으로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컵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3.3%(총 32개)는 1회용 컵을 사용했다. 매장외 이용 대부분 1회용 컵을 사용했고(97%), 그 중 3%만이 개인 텀블러를 사용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1회용품 규제에 대한 자발적인 협약 안에서는 테이크아웃에 사용되는 1회용품을 절감할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개인 컵(텀블러) 사용에 대한 할인제도 와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대민 기자 kdi@

'부모의 마음 건강, 토닥토닥 두드림' 교육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7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센터는 광주서구청소년꿈누리센터에서 '음악 매체를 활용한 부모의 마음 건강, 토닥토닥 두드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와 예비 부모들은 음악과 소리를 통해 내면을

표현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은 40명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포스터에 있는 QR코드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및 부모상담, Help Call 청소년전화1388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위기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등 합리적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